

# 이중의 도시, 이중의 근대

김남희\*

## <目 次>

1. 들어가며
2. 개항도시의 이중도시양상 — 인천과 다롄
  - 1) 공간적 유사성
  - 2) 문화적 유사성
3. '개항장 주변'의 변화와 문제
4. 나가며

## 1. 들어가며

중국 다롄(大連)역에서 차를 타고 서쪽으로 가다보면 10분도 채 되지 않아 독특한 주택가를 만날 수 있다. 현재 이곳에 길게 늘어선 낡은 건물들은 하나같이 시멘트로 문을 봉해놓았거나 유리가 깨져 텅 빈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중국의 전통주택 사합원(四合院)과 서양식 주택을 합쳐놓은 듯한 2,3층 주택의 문으로 들어가면 작은 뜰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이 살았던 듯한 방으로 곧장 이어지기도 한다. 일대가 온통 가림막으로 둘러쳐진 채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주택가는 샤오강쯔(小崗子)라 불리는 곳이다. 샤오강쯔 북단에서 노후한 주택들을 등지고 서면 차도를 따라 이어지는 철로를 받치고 선 철교가 보인다. 인천의 배다리와 유사한 풍경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개항장 주변의 풍경, 또 하나의 근대의 모습이다. 감히 모든 개항도시가 그렇다고 단언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것은 식민 모국에서 건너온 정착

\* 인천대 중국학술원 학술연구교수

민과 피식민 토착민의 거주지를 분리한 식민통치자의 도시계획이 만들어낸 경관으로서 식민을 경험한 동아시아의 개항도시 간에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식민통치계급이 식민지에 도시를 건설하며 토지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패턴이라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패턴의 사례로서 인천과 다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개항장 바깥의 근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천과 다롄은 같은 개항도시로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중국 동북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일본의 계획에서 다롄은 관문과도 같은 곳이었고, 인천은 일본이 중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징검다리였던 셈이다. 아시아에서 세력을 확장하려 했던 일본은 이 두 도시에 이주민을 보내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거점을 마련했다. 역사적, 지리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두 도시에는 모두 개항장이 남아 있고, 지금은 관광자원으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두 도시의 ‘개항장 주변’은 어떻게

그간 인천과 다롄, 혹은 다른 개항도시들 간의 비교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졌다. 기존의 연구는 한국과 중국이 개항도시의 공간 구조를 통해 개항도시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공간적 특징을 분석하거나<sup>1)</sup> 식민지도시의 발전이 복합적인 성격을 띠며 전개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식민통치자와 토착민 간 종족, 계급의 차이에 의한 공간적 격리를 전제로 하는 이중도시론의 추상성을 비판<sup>2)</sup>하는 등, 식민지의 공간 구조와 그것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혹은 범위를 한층 넓혀 식민도시 부산과 다롄의 도시 건설과 이를 통한 공간 재편, 토착사회와의 관계 변화 등을 통해 제국일본이 투사하는 심상지리 속 각 도시의 역할 체계를 그려내기도 했다.<sup>3)</sup> 식민도시 간 근대유산의 보존과 활용 실태를 비교한 연구도 빠뜨릴 수 없다. 김정하의 연구는 근대사의 이해에 있어 지배자의 논리에만 충실하거나 ‘부끄러운 역사’라는 이유로 식민역사를 무조건 부정하는 이분법적 접근을 지양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부산과 다롄, 타이페이 등 과거 피식민 역

1) 김주관, 「공간구조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 개항도시의 식민지적 성격 — 한국과 중국의 개항도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12년8월.

2) 현재열, 김나영, 「비교적 전망에서 본 식민지도시의 역사적 전개와 공간적 특징」, 『석당논총』 50권, 2011년.

3) 이상균, 「일제 식민지 해방도시의 근대적 재편성 연구: 한국 부산(釜山)과 중국 대련(大連)의 비교연구」, 『해방도시문화교섭학』 9호, 2013년.

사를 가진 도시의 근대유산 보존을 둘러싼 문제들을 세심하게 고찰하고, 이러한 유산을 끊임없이 재평가하며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현재화'할 것을 제안한다.<sup>4)</sup> 이처럼 식민지 이중도시론과 근대유산 보존문제에 대한 분석과 제안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 두 가지 문제를 연관 지어 토론하는 목소리는 찾기가 힘들다. 공간 구조에 대한 분석, 남아있는 근대유산(주로 개항장에 있는 유산)의 보존과 활용문제가 각기 독립적인 주제로 제시될 뿐 이중도시 구조 속에서 구분지어진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권력의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본 논문은 식민통치자들이 식민도시건설 과정에서 채택한 공간 구획 위에 형성된 서로 다른 근대화 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남긴 유산이 오늘날의 현실에서 갖는 의미, 향후 예상되는 변화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단순히 개별 건축물이나 유적이 보존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구성해내려는 것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의 장소만들기가 실천해야 하는 목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식민을 경험한 개항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가야 할 문화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이다.

..... 우리가 어떤 도시를 원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가, 자연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가, 어떤 생활양식을 원하는가, 어떤 미학적 가치관을 품고 있는가 등의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sup>5)</sup>

다시 말해, 이 주제는 여러 다른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 도시를 하나의 장소로 만드는 문제이자 그 장소가 가질 집합적 상징자본<sup>6)</sup>을 만드는 일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 가치관과도 관계가 있다. 유산의 선택과 보존에 있어 단순히 '역사적 가치'를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가치'는 현실적 맥락 안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오로지 경제적 효용성으로 결정하거나 평가할 일도 아니다. 도시를 만드는 일은 지금 도시의 경관이 형성된 역사를 이해하고 미래 생

4) 김정하, 「탈식민주의담론에 의한 동아시아 근대역사유적 보존과 활용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부산과 다롄, 타이페이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41권, 2014년.

5) 데이비드 하비 지음, 한상연 옮김, 『반란의 도시』, 서울, 에이도스출판사, 2014년, 26쪽.

6) 데이비드 하비, 같은 책, 2014년, 184쪽.

활의 밑바탕을 그리는 일과 관련된다.

## 2. 개항도시의 이중도시 양상 — 인천과 다롄

### 1) 공간적 유사성

개항장은 “외국인의 거주와 통상을 위해 개방하였거나 개방하기로 약속한 항구 또는 지역”으로 동아시아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공간이다.<sup>7)</sup> 특히 개항장 내에 구획되었던 조계에는 문호가 열린 나라에 들어와 일정 정도의 지방행정권을 위임받아 거주와 통상의 권리를 누린 타자의 생활방식이 이식되었다.<sup>8)</sup> 다시 말해, 동아시아 근대사에서 개항은 앞바다로부터 밀려오는 외세에 굴복해 나라를 열어야 했던 치욕스런 역사이지만, 서구의 신문물이 아시아로 유입된 것도 개항을 통해서였다. 동아시아의 개항장에 남아있는 비슷한 경관들은 영토 확장과 시장 확대를 꿈꾸는 제국주의 열강의 탐욕의 산물인 동시에 근대의 문화와 생활방식이 유입된 흔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만이 근대의 모습은 아니다. 이것은 단지 개항장에 남아있는 ‘외부로부터의 근대성’일 뿐이다. 개항장을 통해 들어온 식민통치자들은 안전과 위생 등의 이유로 식민 모국에서 건너온 이주민과 피식민 토착민의 거주지를 분리하고 식민지경략과 이주민 편의에 필요한 시설들을 개항장에 집중시켰다. 이로써 공간적으로 격리된 일종의 이중도시가 만들어졌다.<sup>9)</sup> 식민통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7) 김주관, 「공간구조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 개항도시의 식민지적 성격 — 한국과 중국의 개항도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12년8월, 250쪽.

8) 개항장과 조계의 보다 자세한 개념과 성격에 대해서는 손정목, 「개항장·조계제도의 개념과 성격」, 『한국학보』 26, 1982년을 참조할 것.

9)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듯, 식민지도시 ‘이중도시론’을 비판하는 관점도 있다. 말하자면 식민지도시를 이분법으로 보는 이중도시론이 원래 식민지도시계획 입안자들이 의도한 것을 그대로 되풀이함으로써 실제 현상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획일화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거주지의 분리는 그렇게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분법적 인식

공간 사이의 경계는 점차 종족의 경계에서 사회경제적 경계로 옮겨갔다.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토착민이 정착민이 거주하는 곳으로 진입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토착민 거주지에서는 인구 유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그들은 대부분 노동력을 제공하는 빈민층이었다. 해방과 전쟁 혹은 혁명, 산업화 등 사회발전 과정을 겪으며 이러한 구분은 점점 뚜렷해지고, 지속적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러한 격차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조금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두 개의 근대 가운데 한 쪽이 '개항장'으로 통칭되는 근대유산의 전시장이었다면, 한 쪽은 방치되어 쇠락한 구도심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해방과 함께 식민통치자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 후 인천의 개항장에 남겨진 시설들은 '적산'이라는 이름 아래 적대의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1990년대 이후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역발전 정책에 힘입어 지역 문화자원으로 신분이 상승했다.<sup>10)</sup> 특히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차이나타운<sup>11)</sup>이 주목받기 시작해 2001년에는 차이나타운권역이 '월미관광특구'에 포함되었고, 지속적인 중국풍 경관조성과 문화·관광 자원 활성화를 통해 국내 및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개항장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일본조계 지역이었던 중구청 주변으로도 일본 전통 목조주택인 마찌야(町家)형 주택들이 들어서 일본풍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다.

중국 다렌은 명청대 칭니와(靑泥洼)로 불리던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것이 근대 식민주의의 침략과 함께 성장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로부터 러

론을 벗어나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 상호작용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잡거와 혼재의 문제가 아닌, 분리된 공간 안에 남겨진 유산의 문제를 고찰하고 있으므로 '이중도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현재열, 김나영, 「비교적 전망에서 본 식민지도시의 역사적 전개와 공간적 특징」, 『석당논총』 50권, 2011년. 김종근, 「식민도시 인천의 거주지 분리 담론과 실제」, 『인천학연구』 14, 2011년 2월 참조.

10) 1890년 지어진 일본18은행은 현재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으로, 1883년 지어진 일본제1은행은 인천개항박물관으로 일반에 공개되어 있으며, 이 밖에 일본58은행, 인천우체국, 일선빌딩이 아직도 남아있다. 구 인천부 청사 역시 옛 모습을 일부 간직한 채 현재 중구청으로 사용되고 있다.

11) 다른 나라의 차이나타운이 이민자들로 형성된 것과는 달리 인천의 차이나타운은 1884년 청국조계가 설치되면서 화교의 이주와 정착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개항장'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시아가 1898년 이곳을 조차하면서 도시계획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에 따라 이번에는 일본의 지배 아래 40년 간 도시의 모습을 갖추어갔다. 뤼순(旅順)을 군항으로 만들어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자 했던 러시아는 다렌을 '동방의 파리'로 만들려 했고, 그런 만큼 파리의 도시계획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당시 유럽의 도시계획에서 유행했던 광장도 도입했다. 다렌에서 가장 먼저 조성된 광장이 바로 '중산광장(中山廣場)'<sup>12)</sup>이다. 이 광장을 중심으로 방사선상으로 뻗어나간 가로망은 분명 파리의 도시구조를 연상시킨다. 방사선상의 가로망은 각각 다른 광장들과 연결되며 행정구, 유럽구, 중국구로 구획을 나누었다.

러시아의 도시계획은 7년 만에 미완으로 끝났지만, 뒤를 이어 다렌의 새로운 통치자가 된 일본이 러시아의 계획을 이어받았다. 기능과 인종에 따라 구획을 명확히 하였고, 도시건설의 첫 단계로 중산광장을 중심으로 웅장한 건축물을 차례로 세웠다.<sup>13)</sup> 1904년부터 1936년 사이에 중산광장 주변으로 다렌민정서(1908), 요코하마쇼킨(橫濱正金)은행 다렌지점(1909), 야마토(大和)호텔(1914), 조선은행(1920), 동양척식은행(1936) 등이 들어섰다.<sup>14)</sup> 중산광장은 도시공간의 중심일 뿐 아니라 식민지 다렌 사회·경제의 중심으로서 일본의 식민지 금융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광장을 둘러싼 근대 건축군은 지금도 여전히 은행과 호텔 등으로 활용되며 관광객에게는 볼거리를, 다렌 주민들에게는 커피를 제공하고 있다.

개항장에 식민통치자의 생활방식이 이식되는 동안,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하나의 근대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개항장에서 밀려난 피식민자들의 공간, 인천의 배다리과 다렌의 샤오강쓰였다(사진2, 사진3 참조). 이 공간들은 공통적으

12) 당시에는 제정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의 이름을 따 '니콜라예프 광장'으로 명명했다.

13) 리웨이, 미나미 마코토, 「다렌 도시공원의 탄생과 변천—식민지 통치시대(1898~1945)를 중심으로」,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2권, 2015년4월.

14) 현재 다렌 민정서는 라오양(遼陽)은행, 요코하마정금은행은 중국은행 다렌지점, 야마토호텔은 다렌빈관, 조선은행은 중국공상은행, 동양척식은행은 교통은행으로 사용되고 있다. 嵇汝廣, 『記憶·大連老街』, 大連: 大連出版社, 2012년, 239-25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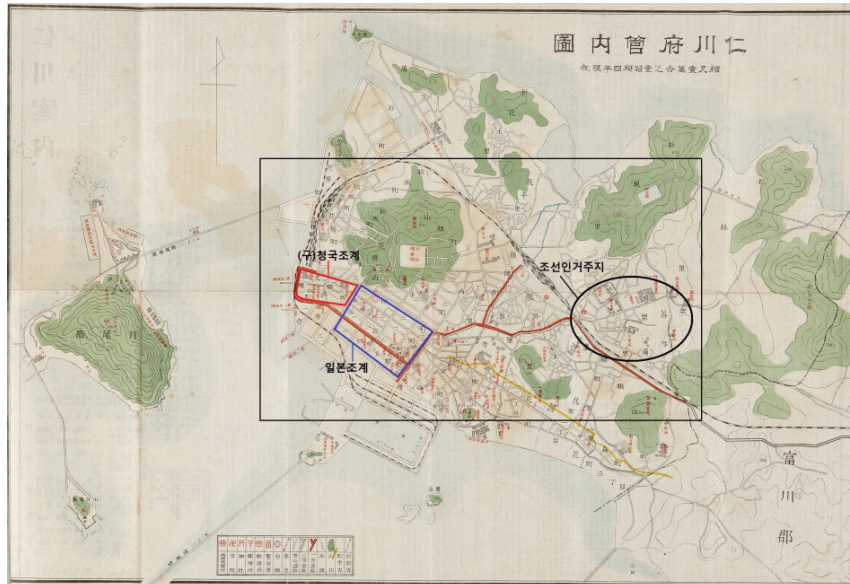


사진1. 쇼와(昭和)4년(1929년) 인천부관내도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사진2. 사진1의 사각형 표시 지역을 확대한 사진. 청국조계는 1914년 철폐되어 1929년에는 지나정(支那町)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불렸다.

로 항구, 기차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토착민들은 식민지배층에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고, 외지에서 흘러들어온 이들, 청말 산둥(山東)의 기근을 피해 고향을 떠난 하이난둥(海南鬮)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항구와 역에서 날품을 파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낮은 지대에 위치해서일까, 철로문다리(철교)가 있는 것도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이다. 그리고 오늘날 인천과 다렌의 장소마케팅 전략에서 개항장의 경관은 도시 랜드마크로서 지위를 확립했지만, 배다리와 샹오강쯔는 그렇지 못했다.



사진3. 1912년 다이렌(다렌의 일본식 이름) 개항장 부근 지도  
 (https://legacy.lib.utexas.edu/maps/historical/dairen\_dalny\_1912.jpg)

## 2) 문화적 유사성

일본조계가 확장됨에 따라 이곳에서 밀려난 조선인들이 모여들어 만들어졌다는 배다리(사진4 참조)는 “경인선 전철이 지나는 배다리 철교 아래 동구와 중구의 경계를 이루는 지점”<sup>15)</sup>으로 지금의 금창동, 송림동 일대를 가리킨다. 이곳에 자리 잡은 조선인들의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접변을 통해 배다리에서는 토착민이 중심이 된 근대문화가 형성되었다. 우선 한국 최초의 서구식 초등교육기관 영화학교(1892년 설립, 1911년 금창동 현재 위치로 이전)와 인천의 첫 공립초등교육기관인 인천공립보통학교(1907년, 현 창영초등학교)가 이곳에 자리 잡아 근대 교육의 요람이 되었다. 특히 한국 최초의 여성 유학생 하란사(본명 김란사), 한국 최초의 여성박사 김활란, 여성교육자 서은숙, 김애마, 음악가이자 교육자인 김영의 등이 영화학교를 통해 배출되었다. 이곳의 교육이 조선인들의 구심점이 되면서 인천 3.1 운동 역시 인천공립보통학교와 인천공립상업학교 학생들의 항일시위에서 시작되었다. 조선인촌주식회사(1917년 설립)는 성냥 생산으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며 근대산업의 대명사가 된 한편, 1921년에는 부당한 노동착취와 민족차별에



사진4. 현재 인천 개항장 부근 지도(<https://map.naver.com>)

대항해 동맹과업에 나선 조선인 직공들을 통해 인천 노동운동의 시작을 알리기도 하였다.

해방 후에는 인천을 떠나는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처분하면서 배다리에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장소이다 보니 한국전쟁이 끝난 후 무엇이든 물건을 사고팔기 위해 모여든 곳 역시 배다리였다. 시장, 병원, 극장 등이 들어서면서 서민의 일상은 배다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배다리 현책방거리가 형성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였다(사진4 참조).

다렌의 샤오강쯔에서도 토착민의 문화가 만들어졌다. 1905년 러일전쟁의 승리로 다렌의 새로운 주인이 된 일본은 러시아의 도시구획에 일본구를 더해, 새롭게 만든 일본인 구역에 살던 중국인들은 중국구로 몰아냈다. 중국인들이 모여들면서 샤오강쯔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활기를 띤 곳이 동관가(東關街)였다. 동관이라는 이름도 이러한 도시구획과 관련이 있다. 당시 샤오강쯔에 사는 중국인이 일본인 구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검문소를 지나야 했는데 이 검문소가 샤오강쯔 동쪽에 세워져 그곳을 '동관'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사진5 참조).<sup>16)</sup>

주로 부두노동자나 인력거꾼 등, 식민사회에 인력 노동을 제공하는 이들이 거주하던 이곳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중국인의 생활에 필요한 두부공장, 자전거포, 잡화점 등 가내수공업자들은 물론, 중국인이 경영하는 상점들도 이곳에 자리 잡았다. 중국인이 경영하는 다렌의 첫 사진관(華春), 최초의 약국(康記西棧, 이후 康德記로 상호를 바꾸었다)이 들어선 곳도 이곳이었다.<sup>17)</sup> 1909년 세워진 시장시장(西崗市場)은 다렌에서 가장 먼저 생긴 시장이었다. 오늘날 중국인들이 이곳을 '다렌 민족상공업의 발원지'<sup>18)</sup>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장 노동자가 중심이 된 노동운동이 일어났고, 1920년 조직된 중국공산당 지방조직 중화청년회(中華靑年會)가 1922년 이곳으로 옮겨와 신문화와 신사상을 전파하는 애국운동을 전

15) 이희환, 『오래된 서민들의 삶의 터전—배다리 일대의 문화와 풍속』, 이희환 엮음, 『인천 배다리 시간, 장소 사람들』, 인천, 작가들, 2009년, 58쪽.

16) 王巍, 「以大連東關街爲例談歷史街區保護」, 『山西建築』 제41권제36기, 2015년12월, 8쪽.

17) 嵇汝廣, 『記憶·大連老街』, 大連: 大連出版社, 2012년, 295-303쪽.

18) 張杲陽, 黃玲, 「基于地方文化保護視角下的老城區改造研究—以大連東關街爲例」, 『今傳媒』 2015년 제10기, 125쪽.

개했다. 공산당 지하운동의 연락거점이 되었던 필방(益記筆店) 역시 시장시장 맞은편에 위치해있었다.<sup>19)</sup> 차별로 보이는 공간의 격리 속에서 이렇듯 분출한 역동성을 개항장에서는 찾을 수 없는 '피지배자의 저항과 주체적 수용, 재창조'<sup>20)</sup>라고 이해한다면 배다리와 샤오강쯔의 공통점은 더욱 분명한 의미를 가진다.



사진5. 현재 다렌 개항장 부근 지도(<http://map.baidu.com>)

이러한 배다리와 샤오강쯔는 근대를 지나며 이루어온 발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낙후한 환경을 끌어안은 채 도시개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저 뒤쳐졌다기보다는 보존과 개발의 갈림길에서 적절한 발전방향을 찾지 못했다고 해야

19) 王軍, 萬映辰, 「俄日占領時期的大連東關街」, 『大連大學學報』 제37권제1기, 2016년2월, 23쪽.  
 20) 김정하, 「탈식민주의담론에 의한 동아시아 근대역사유적 보존과 활용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부산과 다렌, 타이페이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41집, 2014년, 21쪽.

할 것이다. 1970~80년대 한국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에 따라 주택의 수요가 격감하자 주택방들이 타격을 받았고, 여기에 1985년 도시계획으로 공설운동장과 동인천을 연결하는 도로가 확장되면서 생활용품을 만들어 팔던 수공업자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배다리를 관통하는 산업도로 공사를 두고 1997년부터 시와 주민 사이에 대립이 일어나기도 했다.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샤오강쯔의 주거양식은 최근 까지도 공동화장실과 공동수도 그리고 주로 석탄에 의지하는 개별난방 등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남아있었다. 원래 살던 주민들은 새로 지은 아파트나 타지로 이주하고, 외지에서 유입된 또 다른 하층민이 이곳을 채웠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 일대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도 어렵거니와 딱히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결국, 개항장의 이국적인 식민유산이 도시의 역사경관을 그려내는 동안, 외래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위에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온 피식민 주체의 생활공간(사진6 참조)은 잊혀져 온 것이다.



사진6. 샤오강쯔의 옛 모습

(李振榮 主編, 『大連夢中來』, 北京: 人民美術出版社, 1996)



사진7. 철거를 앞둔 시장시장과 샤오강쯔  
(2016년 필자 촬영)

### 3. '개항장 주변'의 변화와 문제

그 동안 잊혀져있던 개항장 주변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렌의 샤오강쯔에서 철거가 진행된다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등관가 노후지역 개조공정은 이미 '국가관자촌개조계획(國家棚戶區改造計劃)'에 포함되어 있다.<sup>21)</sup>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시장시장은 이미 문을 닫았고 면적 112,350평방미터 내 2,310가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특기할만한 점은 철거·이주 과정에서 시장구가 기업을 참여시키지 않고 정부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주민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식은 배제하고 경제적으로 보상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이주하게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일단 이 지역을 완전히 비우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등관가 일대 재개발은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을 충실하게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21) 「東關街舊城區改造要開始了」, dltv, 2015년10월8일.

<http://www.dltv.cn/news/redianminsheng/2015-10/08/cms555896article.shtml>

다. 그러나 당국은 등관가 재건축이 최대한 과거의 모습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원칙은 공개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sup>22)</sup>

배다리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는 이들은 몇 남지 않은 헌책방과 배다리를 지키려는 문화운동을 전개해왔다. 최근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배다리가 위치한 동구에서 '경인선 역사·문화자산 스토리텔링' 사업을 시작해 경인선을 중심으로 한 근대 역사문화자산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수립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동시에 문화예술과 결합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구 도시재생교육홍보관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동구의 변천사를 보여주고 도시재생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의 배다리에 문화콘텐츠가 늘어나고, 다롄에서 등관가 개조계획이 시작된 것은 분명 반길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역사적 의미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문제도 많다. 우선, 배다리와 등관가의 변화가 단순한 노스텔지어를 충족시켜주는 볼거리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하이(上海)의 경험을 통해 이미 목도한 바이기도 하다.

근대주택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상하이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상하이 식민지배를 상징하는 황푸강(黃浦江) 와이탄(外灘) 지역의 고풍스러운 근대 상업건축물 활용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도심재생의 사례가 되었다. 여기에 1920~1930년대 대량으로 지어져 사회주의 중국 성립 이후 정부의 관리 아래 저소득 주민에게 분배되었던 스투먼(石庫門)주택이 또 하나의 신화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과거 도심의 빈민주택이었던 이곳을 개조하여 상하이의 옛 모습과 함께 이국적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상업용으로 용도를 전환한 것이다. 신텐디는 현재 상하이에서 가장 세련되고 유명한 소비 공간이 되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보존을 선별적으로 응용하면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중국 개발업자들에게 보여준 첫 사례”<sup>23)</sup>인 이곳은 결국 높은 지가를 자랑하는 고급 상업지구일

22) 「110年歷史的東關街開始舊城改造」, 『半島晨報』, 2015년10월9일.

23) 예룬 흐루너베헌-라우, 「베이징, 중국의 문화창의산업과 스펙터클한 장소만들기」, 신현준

뿐만 아니라 상하이 지역의 복잡한 역사적 경험을 드러내 보여주는 자원이 되는 데에는 실패한 듯 보인다. 이처럼 “식민주의와 관련된 부정적 기억이 화려한 과거에 대한 노스텔지어로 전환될 때에야 비로소 가능”<sup>24)</sup>한 도심재생은 애초에 복원을 통한 재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개발 직후, 그리고 이 지역이 점차 유명세를 얻어가는 사이 발생한 이익을 가져간 이는 누구이며 배제된 이는 누구인지도 제기해볼 만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다렌과 인천에서 진행되는 도심재생에 있어 신텐디는 적어도 성공사례로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다만 신텐디가 완공된 것이 2001년, 이미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개방도시들이 어떤 도심재생전략을 내놓을지 자못 궁금하다.

배다리나 동관가의 장소마케팅이 더욱 신중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뚜렷한 개성을 가진 이 지역의 ‘문화’ 때문이다. 배다리도 동관가도 지역의 가치를 언급할 때면 우선 역사와 문화를 강조한다.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다만 현재 ‘문화’가 가지는 함의가 과거와 달라졌음을 인식해야 한다.

도시들은 관광객과 투자자, 상하이동 중인 계층을 끌어들이는 데 적당한 ‘토착적 진정성(indigenous authenticity)’을 발산한다고 여겨지는 온갖 물질적·상징적 경관의 독특한 측면을 부각시켜 문화의 기반으로 삼는다.<sup>25)</sup>

인천, 다렌 역시 개항장의 경관을 바로 이러한 ‘문화’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해왔고 계속해서 새로운 ‘문화’ 자원을 찾고 있다. 결국 역사경관이 노스텔지어에 의한 소비 공간이 되어가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문화’라고 느낄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서는 “상품화되는 문화만 인정”하기 때문이다.<sup>26)</sup>

이기웅 편, 『아시아,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파주, 푸른숲, 2016년, 83쪽.  
 24) 한지은, 『도시와 장소 기억—근대역사경관의 노스텔지어를 이용한 상하이의 도심재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년, 246쪽. 근대건축을 이용한 상하이 도심재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참조할 것.  
 25) 왕권, 「선전과 리수이, 끊임없이 이동하는 예술가들과 불안정한 노동조건」, 신현준, 이기웅 편, 『아시아,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파주, 푸른숲, 2016년, 278쪽.  
 26) 모리 요시타카, 「도쿄 코리야타운 신오쿠보, 소수민족 문화의 상업화와 정치적 반응」, 신현준, 이기웅 편, 『아시아,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파주, 푸른숲, 2016년, 339쪽.

이 문제에 있어서는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울의 홍대, 서촌 등이 (한국적 맥락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고유의 문화적 개성을 잃어가는 상황이다. 게다가 문래동과 성수동, 망원동으로 확산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서도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경향이 눈에 띈다. 서울의 현재로부터 균열을 만들어내는 이 지역의 소규모 공장, 철공소, 재래시장의 경관이 색다른 체험에 대한 욕구를 자극한 결과, 현재는 이 지역에 카페, 빵집 등 비슷한 형태의 소비 공간이 형성되고 이로써 독특한 문화의 기반이 되었던 이질성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배다리나 샤오강쯔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할 때, 어떻게 하면 토착적 개성이 문화의 형태로 소비와 접목된 후에도 개성을 유지하고 문화가 급속하게 동질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4. 나가며

근대의 이중도시 구조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오늘날 도시가 처한 현실에 기인한 바가 크다. 자본의 세계화에 따라 도시가 국가를 넘어서서 세계 경제의 범위에서 경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도시정체성을 구성하고 지역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역사경관이 장소마케팅의 중요한 자원이 된 것이다. 지역 역사경관을 상업적으로 개발, 이용하는 것이 각 지방정부와 기업들에게 '문화'를 지키면서 장기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 되고 있다.

개방과 다양성, 글로벌화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지금, 타자들이 개항장에 남기고 간 흔적은 아시아의 개항도시들이 외부세계와 교류하는 길목이자 무역, 외교의 각축장으로서 '화려했던' 과거를 뽐낼 수 있게 해주었다. 반면, 그 주변 지역은 외부로부터의 근대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토착문화의 근간을 잃지 않은 또 다른 근대성을 발전시켰지만, 개항장과 비교해 충분히 이국적이지도, 웅장하지도 않은 이곳의 경관은 지방정부의 장소마케팅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외면이 지금으로

서는 오히려 다행인지도 모르겠다. 이중도시 구조 속에서 다르게 발전해온 문화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역사경관 복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다리와 사오강씨는 각각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 두 공간은 식민의 역사 속에서 토착민의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는 일은 단순히 옛 모습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맥락에서 새로운 문화다양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개항장 주변에서 해야 할 일은 현재 엇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문화 향유 방식에 대한 이질성을 유지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근대성'이 도시 역사경관을 지배하고,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소비 공간이 늘어나 상업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일본조계에서 토착민이 밀려나듯) 젠트리피케이션에 떠밀린 문화·주민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 영역에서의 '저항과 주체적 수용, 재창조를 시도할 만한 공간이 필요하다. 개항장 주변의 복원은 이 지역이 가진 장소성을 통해 이러한 시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역사경관의 복원이 일방적인 의미의 전달에만 치중한다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지역사회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최소한의 '역사적 의미'조차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단순한 과거 기억에 대한 소환, 정서적 공감에만 의지해 상업화되어서도 역시 의미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개항장 주변을 둘러싼 장소화 전략, 또 하나의 근대성에 대한 접근은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 〈參考文獻〉

- 데이비드 하비 지음, 한상연 옮김, 『반란의 도시』, 서울, 에이도스출판사, 2014년.  
 이-푸 투안 지음, 구동희, 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서울, 도서출판대운, 2011년.  
 신현준 이기웅 편, 『아시아,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파주, 푸른숲, 2016년.

- 한지은, 『도시와 장소 기억 — 근대역사경관의 노스텔지어를 이용한 상하이의 도심재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년.
- 이희환 엮음, 『인천 배다리 시간, 장소 사람들』, 인천, 작가들, 2009년.
- 산업도로 무효화 주민대책위원회, 배다리를 지키는 인천시민모임 엮음, 『인천 배다리에서 도시의 미래를 묻다 — 인천 배다리와 산업도로 관련 기사·글 모음』, 인천, 도서출판미주, 2009년.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동아시아, 개항을 보는 제3의 눈』, 인천, 인하대학교출판부, 2010년.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동아시아 개항도시의 형성과 네트워크』, 서울, 글로벌콘텐츠, 2012년.
- 정근식, 신혜선 편, 『다렌연구』, 과천, 진인진, 2016년.
- 조정민 엮음, 『동아시아 개항장 도시의 로컬리티』, 서울, 소명출판, 2013년.
- 취샤오판 지음, 박우 옮김, 『중국 동북 지역 도시사 연구 — 근대화와 식민지 경험』, 과천, 진인진, 2016년.
- 권경선, 구지영 편저, 『다렌 환황해권 해항도시 100여 년의 궤적』, 서울, 도서출판선인, 2016년.
- 嵇汝廣 著, 『記憶·大連老街』, 大連, 大連出版社, 2012년.
- 大連晚報社周刊部 編, 『印象·大連老地兒』, 大連, 大連出版社, 2012년.
- 蔣耀輝 著, 『大連開埠建市』, 大連, 大連出版社, 2013년.
- 李振榮 主編, 『大連夢中來』, 北京, 人民美術出版社, 1996년.
- 김주관, 「공간구조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 개항도시의 식민지적 성격 — 한국과 중국의 개항도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12년8월.
- 현재열, 김나영, 「비교적 전망에서 본 식민지도시의 역사적 전개와 공간적 특징」, 『석당논총』 50권, 2011년.
- 이상균, 「일제 식민지 해항도시의 근대적 재편성 연구: 한국 부산(釜山)과 중국 대련(大連)의 비교연구」, 『해항도시문화교섭학』 9호, 2013년.
- 김정하, 「탈식민주의담론에 의한 동아시아 근대역사유적 보존과 활용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부산과 다렌, 타이페이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41권, 2014년.
- 손정목, 「개항장·조계제도의 개념과 성격」, 『한국학보』 26, 1982년.
- 김종근, 「식민도시 인천의 거주지 분리 담론과 실제」, 『인천학연구』 14, 2011년2월
- 리웨이, 미나미 마코토, 「다렌 도시공원의 탄생과 변천 — 식민지 통치시대(1898~1945)를 중심으로」,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2권, 2015년4월.
- 王巍, 「以大連東關街爲例談歷史街區保護」, 『山西建築』 41권제36기, 2015년12월

張杲陽, 黃玲, 「基于地方文化保護視角下的老城區改造研究 — 以大連東關街爲例」, 『今傳媒』 2015년제10기.

王軍, 萬映辰, 「俄日占領時期的大連東關街」, 『大連大學學報』 제37권 제1기, 2016년2월.

〈Abstract〉

Dual Cities, Dual Modernities

Kim, Nam-Hee

This study intends to discover and appreciate multiple modernities by comparing Incheon (仁川) in Korea and Dalian (大連) in China. Both cities were open ports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and, according to the ruler's urban planning, were built dually to separate the residences of the colonizer and the colonized. The borderlines that were drawn to divide different ethnicities, soon became socio-economic borderlines. As the cities kept developing, the social gaps between the separated residences became obvious. Since 1990s, both in Incheon and Dalian, efforts have been made to reflect their own histories as open ports and it turns out that the socio-economic borderlines from the past still remain unchanged.

While present literature frequently deals with the dual structure of Incheon or Dalian or focuses on how to preserve specific modern historical places in the cities,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ies of restoring modernity from within as well as from outside by properly preserving and utilizing the remaining dual places. Both located near to the open ports, Baedari in Incheon and Xiaogangzi (小崗子) in Dalian were residences of low-income people who were providing manpower for each colonized society. These two area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not only accepted the influence from outside also developed autonomous modernity by

maintaining national identity and internal motivation. However, the reality is that at present, they are just old and rundown areas which are almost forgotten, waiting to be redeveloped. With the rise of consciousness about the significance of modern history, more people tend to prefer restoration to removal of historical places. Still it requires more judicious approaches to restoring local history. Approaching the unvarnished history in specific and elaborated ways will make the meaning of modernity in the colonized cities richer and deeper. We should be careful that the recent new interest in the histories of the two cities doesn't end in degenerating those historical sites, such as Baedari and Xiaogangzi, into commercialized nostalgic areas or in creating extra burden by failing to incorporate the renewed historical sites into the original local communities.

Key words: Incheon, Baedari, Dalian, Xiaogangzi (小崗子), Dual city, modernity, nostalgia, gentrification

이 논문은 2018년 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8년 2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8년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